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미 물가 안도감에도 중등 리스크 및 달러 지지력에 하단 제한**
daily range 예상: 1,412~1,422원

■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이어 7월 CPI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 금리인상 전망이 다소 약화되었음.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중등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달러 지지력이 유지되면서 환율이 아래로 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다만, 상단에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적극 출회되고,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하방 압력에 힘이 실릴 전망.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10원대 중후반에서 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5.5원 오른 1,418.5원 마감**
장 초반, 미-이란 협상 교착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저가 매수세로 오름세를 보이며 1,410원대 후반까지 상승. 그러나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와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에 하락 전환해 1,415.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예상 부합한 미 CPI에도 중등 리스크가 부각되자 반등, 1,410원대 후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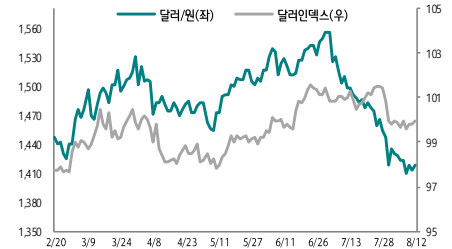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의 7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함에 따라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미-이란 간 협상 난항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강세로 전환
- **(유로-달러)** 미 물가 안도감 속 연준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임
- **(달러-엔)** 일본 금융시장은 휴장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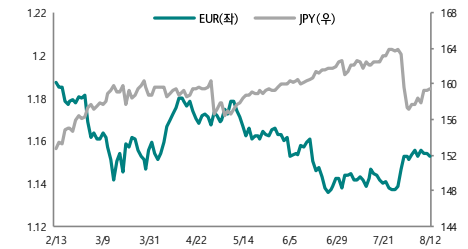
- 전일 발표된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음. 세부적으로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기록. 7월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모두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며 5월 이후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부문별로는 기간 물가 상방 압력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주거비 오름세가 다소 제한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음.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실물 경기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 등 물가를 자극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시장 내 연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당분간 잔존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글로벌 달러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2.5	1,419.0	1,411.4	1,417.5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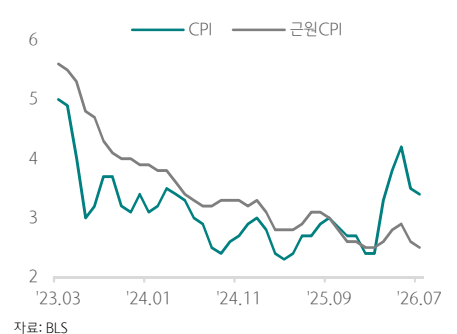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26	159.43	6.7457
전일대비	-0.0017	+0.15	-0.0006
재정환율	1,635.23	888.88	210.07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5:00	영국 2분기 GDP(QoQ)	0.4%	0.6%
21:30	미국 7월 PPI(MoM)	0.2%	-0.3%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2k	199k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 BLS